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공조채널 부재

예산 확보 협력 급하다

전남도는 서울서 의원 간담회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2009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의 모든 인적 역량을 총동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현안 사업의 차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당내 문제 때문에 참석예상 의원이 3명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시가 예산안을 부처에 제출해놓고 아직까지 그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협조 요청조차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6월 말 정부 각부처로 넘긴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지역 일부 의원의 경우 예산 요구 상황을 알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광주시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각 부처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뒤인 2일에야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의 K의원은 “광주시의 예산 요구내역을 미리 알았다면 각 부처의 예산안이 짜이기 전에 부탁을 해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달 12일 박준영 지사와 산·국장들이 서울을 직접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의 사정에 따라 국비 예산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지역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해남에 국내 최대 소방 기자재 공장

郡, (주)화성방재와 1,000억 투자 협약 체결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기자재 생산공장이 건설된다.

해남군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주)화성방재와 1천억원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화성방재는 소방 및 선박기자재 부품인 소방배관 생산 전문업체로 내년 초 1천억원을 들여 회원면 일대 13만

m²에 소방기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오는 2010년 공장이 준공되면 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해남군은 2012년 1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신안 증도 '금연의 섬'

이달부터 단계별 조성

슬로우 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 증도가 '담배연기 없는 폐적하고 깨끗한 금연의 섬'으로 거듭난다.

신안군은 웨딩 관광휴양지인 증도가 클린 존(Clean Zone)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다.

신안군은 금연의 섬 조성을 위해 1단계로 이달부터 흡연 관련 주민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주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어 내년에 2~3단계 사업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 서명 운동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조례제정을 거쳐 금연 섬 선포식을 개최해 다시 찾고 싶은 건강의 섬으로 탈바꿈시킨다.

또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폐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유원지와 해수욕장, 스쿨 존 등에 자율금연거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증도면 선착장에 금연 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물품 및 담배보관소를 만들어 금연 섬 만들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한국 소믈리에 대회

2일 오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프랑스 농수산부 외인사무국 주최로 열린 '제7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결선 진출자들이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중단 F1 경주장 건설 곧 재개

주 시공사 SK건설- 금광기업 도급계약 체결

한 달 가량 중단됐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전남도는 2일 “최근 F1 경주장 건설공사 주 시공사로 참여한 SK

건설과 기존 건설사인 금광기업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 중단됐던 경주장 건설공사가 이번 주 안에 재개된다”고 밝혔다.

F1 경주장 건설공사는 지난 달 2일 SK건설의 지분 인수인계 문제, 금광기업과 하도급업체들 간의 공사비 지

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와 SK건설, 신한은행 등 7개 F1사업 참여기업들은 6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출자를 2주 내에 끝내기로 했으며, 6명의 이사회 구성방법에 도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2명의 이사와 감사 선임권을 갖고, 기존의 F1 한국 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코리아오토밸리오피레이션(KAVO) 대표이사에게는 대외관계와 대회 유치 등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문직·공직 여성 대거 진출

정규직 29%, 고용질은 낮아

2008 통계로 본 여성 삶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거나 국회와 공직사원에 진출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했다.

통계청은 2일 여성주간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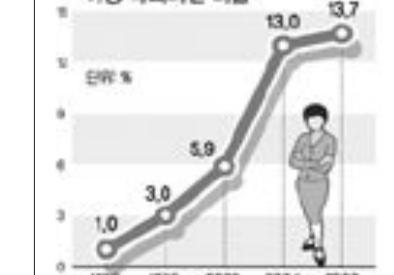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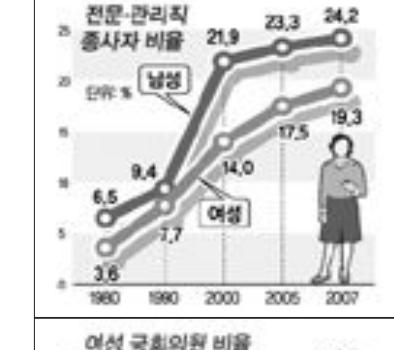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지난 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고인 19.3%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도 98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16대 때는 13.0%, 15대 때는 5.9%였다.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2년 지방선거 때 3.4%에서 2006년엔 14.5%로 크게 높아졌다.

공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도 꾸준한 상승세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7급 행정·공직자에 각각 역대 최고치인 49.0%, 67.7%, 33.1%를 기록했고, 사법시험과 9급 행정·공직자에서는 각각 35.0%, 45.5%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문·고위직을 비롯해 고용 시장 전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은 28.7%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은 29.9%, 일용직은 10.2%였다. /연합뉴스

노무현 '함평 학습'

오늘 봉하 주민 30명과 함께 생태 견학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평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3일 봉하마을 주민 30여명과 함께 함평을 방문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연생태 공원과 엑스포대회장, 해변을 해바라기마을, 신광면 연천백련단지 등을 둘러보고 함평군과 봉하마을 간 공동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과 주민들은 친환경 군으로 자리매김한 함평



군을 벤치마킹, 봉하마을에도 친환경 농촌과 생태 경관을 조성 할 계획이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이용섭 전 장관 등 일행 30여명과 함께 함평을 방문,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현장을 둘러봤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

日만정

- 김종두



이것도 '소통'이 안 되는군

7월 5일(월)

▲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16대 때는 13.0%, 15대 때는 5.9%였다.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2년 지방선거 때 3.4%에서 2006년엔 14.5%로 크게 높아졌다.

공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도 꾸준한 상승세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7급 행정·공직자에 각각 역대 최고치인 49.0%, 67.7%, 33.1%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도 98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16대 때는 13.0%, 15대 때는 5.9%였다.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2년 지방선거 때 3.4%에서 2006년엔 14.5%로 크게 높아졌다.

공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도 꾸준한 상승세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7급 행정·공직자에 각각 역대 최고치인 49.0%, 67.7%, 33.1%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도 98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16대 때는 13.0%, 15대 때는 5.9%였다.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2년 지방선거 때 3.4%에서 2006년엔 14.5%로 크게 높아졌다.

공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도 꾸준한 상승세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7급 행정·공직자에 각각 역대 최고치인 49.0%, 67.7%, 33.1%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도 98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16대 때는 13.0%, 15대 때는 5.9%였다. 여성 지방의원 비율도 2002년 지방선거 때 3.4%에서 2006년엔 14.5%로 크게 높아졌다.

공직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도 꾸준한 상승세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7급 행정·공직자에 각각 역대 최고치인 49.0%, 67.7%, 33.1%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도 982만 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7.1%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는 12.5% 늘었다. 남녀 취업자 종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의 격차도 10년 전 9.1%포인트에서 4.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도 가장 높